

## 시인의 마을

## 가을이 오면

우리 마음에는 누구나 하나  
쯤 시인의 마을이 있다.  
뭐라 지랄할 것도 그렇다  
고 아무것도 아닌 시를 읽고 쓰는  
초보가 머무는 마을이다. 그래서  
아무 걱정 없이 시를 읽고 끄적거  
리며 살아가는 평온한 삶이 가능하  
리라는 것이 상식이다. 그러나 거  
시기할 것 같던 거기도 어쩔 수  
없다. 대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그  
런 거시기한 거그와 그렇게 여름  
은 같다.

그 뒤를 이어 빠른 발로 가을이  
오고 있다. 아니, 아무도 모르게  
발기락 사이에 가을은 송골송골  
이슬을 뗐었다. 어쩜, 이렇게 가을  
인데도 징징게 담고 습기는 짜증  
을 낸다. 사위를 해도 좋은 끈적거  
리고 녹죽한 날이 엎그제 예를 보다  
덜하지는 않다. 살아오면서 들  
어보지 못한 '가을장마'가 많은  
이의 영혼을 어둠의 성으로 이끌  
고 있다.

덤으로 하나 더 기억해야 하는  
가을이 있다. 바로 점심나절의 따  
사로움이다. 조상들은 이것을 곡  
식이 악어가는 조건의 하나로 보  
았다. 큰 기운 차에 조금 힘든 시  
기이다. 그렇지만 그래도 괜찮다  
않은 걸웃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  
다. 그래도 칭운 너머 대추나무에  
붉게 물든 농부의 얼굴이 가능하



박여범

용복중학교 · 시인  
문학박사 · 문학평론가

때면 덩달아 차오르는 흥에 미소  
짓게 된다.

올해 가을에 포획된 항목이 하나  
더 늘었다. 가을을 힘들게 하는 목  
록 플러스 바로 마스크다. 코로나  
19로부터 안전을 지켜주는 고마운  
마스크다. 그렇지만, 때로는 힘이  
들 때도 있다. 코가 너무 답답하  
다. 입이 마르고 목에는 늘 무었인  
지 알 수 없는 고통을 멈출 수가  
없다. 우리의 목을 죄는 마스크만  
없어도 살 것 같다.

그럼에도 아이리니하게도 시인의  
마을에서는 필요하면서도 천시되  
던 마스크가 이제는 너무나 간절  
하다. 살살해진 날씨 밖에 무엇인  
가을을 눈에 담고 싶다. 그 누  
가 가을이 예쁘다고 정의해도 다  
필요 없다. 가을이 예쁜 이유는 저  
마다 다르겠지만, 그것을 알면 우  
리는 이미 시인이 되었을 것이다.  
그래서 가을을 알기 위한 시간이  
지금도 앞으로도 매우 필요하지

모른다.

차를 한 잔 들고 수돗가 주위를  
거닐다가 눈에 들어온 감잎이 너  
무나 예쁘다. 태양이 나뭇가지 사  
이로 차 그늘진 곳을 향한다. 그  
사이로 보일 듯 말 듯 열핏열핏  
들어오는 간나무와 풀들이 물감을  
달리한다. 여기에다가 논두렁엔  
낙엽민이 가을이나를 시위하는 알  
일이 붉은 대추는 엄지척이다.

이처럼, 간나무가 물들고, 이를  
없는 틀꽃과 다양한 색을 자랑하  
는 단풍나무로 눈에 담기 아끼워  
지는 모습을 최대한 연출하다. 꽃  
꼭, 습어야 더 아름다운 단풍도 있  
다. 반면에 날들날들 허를 내밀며  
지팡이에 바쁜 풀꽃도 있다. 거시기  
한 거그 시인의 마을도 예외는 아  
니다. 도토리 키 제기인 출렁면서  
도 시인의 마을에서는 가을 아닌  
것이 없다.

가을은 이미 소리 없이 그렇게  
우리에게 오고 있다. 그 가을을 합  
께할 시인의 마을이 너무나 조용  
하다. 시절이 시절이라고 하지만,  
없어도 너무 없다. 그거가 너무 조  
용하다. 비단 잘 날 없던 시절이  
그립지는 않다. 그러나 시인의 마  
을만은 꿀꿀꿀꿀마다 아이들 웃음  
소리 까르륵 들리는 가을을 맞이  
하고 싶다. 기쁨 들려오는 개 짖는  
소리만이 처량한 가을이다.

##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

## 바이든 대통령 "미국을 건설한 것은 노조"



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일(현지시간)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노조 관계 행사를 열고 연설하고 있다. 바이든 대통령은 "미국을 건설한 것은 노조"라면서 "노동자의 힘은 우리 경제를 더 잘 회복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"라고 강조했다.

## 기니 쿠데타 이후 거리 일상



8일(현지시간) 기니 수도 코나크리 거리에서 한 여성의 음식을 팔고 있다. 기니의 새  
군부 지도부는 이전 정부 시절 수감됐던 수십 명의 정치범을 석방했는데 이는 알파  
콩데 대통령에게 반대했던 야당의 흔성을 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.

## 사설

## 노인자원봉사지원센터의 복지관 협약 의미

대한노인회 전북연합회 노인  
자원봉사지원센터가 최근 전주  
시 평화동에 자리 잡고 있는 학  
산종합사회복지관과 지역 협력  
기관으로 협약을 체결했다. 전  
북연합회 노인자원봉사지원센터  
는 앞으로 학산종합사회복지관  
의 노인 돌봄 가족의 돌봄 부담  
완화를 위한 지원 사업 업무에  
적극 협조하기로 했다.

김두봉 연합회장을 "학산종합  
사회복지관과 더불어 사는 지역  
공동체가 되도록 서로 협력하  
자"고 말했다. 그는 또 "지역 사  
회를 위해 봉사하는 웃음 미술  
클럽의 노고에 감사하며 존경받는  
노인으로서 봉사 활동에 최  
선을 더해 줄 것을 당부했다.

이번 협약을 통해 전주 평화동  
돌봄 가족 7세대에게 월 1회 집  
안 청소 등 청결 지원 봉사 활  
동을 진행한다. 특히 웃음미술  
지원봉사클럽 회원 20명이 참여  
할 예정이다. 웃음미술클럽은  
미술 및 문화 공연 봉사 클럽이  
다. 경로당과 요양병원 등에서 공  
연 활동으로 어르신들에게 건강  
서기 바란다.

## 부안민속박물관의 희귀 민속품

부안민속박물관은 부안군 부  
안읍 용계길에 자리한 부안자닐  
부설 박물관이다. 이곳에는 박  
재순 부안자닐 사장이 50년 동  
안 수집한 유물 3,000여 점이 있  
다.

최근 전주에 사는 정연덕씨  
(여)가 부안민속박물관에 작은  
용기 향아리 등 희귀 민속품 15  
점을 기증해 눈길을 모았다. 정  
씨의 기증품은 향아리 외에도  
향로, 담배대, 옛가위, 끄그릇  
등이다.

실내 실을 깊는 기구도 있다.  
모두 정연덕씨가 오랫동안 정성  
스럽게 간직해 온 것들이다. 한  
편 정씨는 전주 가정교회에서  
국제 축복 결혼 업무를 담당하  
고 있다.

고창 출신이지만 부안으로 시  
집와서 오랫동안 사회 복지 활  
동을 해왔다. 지금도 가정교회  
에서 꾹꾹히 활동하고 있다.  
한편 부안민속박물관은 부자  
위, 응우례, 맞두레, 그리고 민  
속놀이 도구 등이 즐비하다. 지  
난해 10월 문을 연 농업 관련  
유물 전시관도 있다. 이는 부안

제널 창간 22주년을 기념해 오  
픈한 곳이다.

풍구와 구무리 등 70여 점의  
농업 관련 유물이 있다. 오래된  
토기와 고려청자, 백자, 그리고  
근대에 이르러 일본인들이 쓴  
유물도 꽤 많다. 비빔밥에도 변  
치 않는 돌과 응기도 많이 수집  
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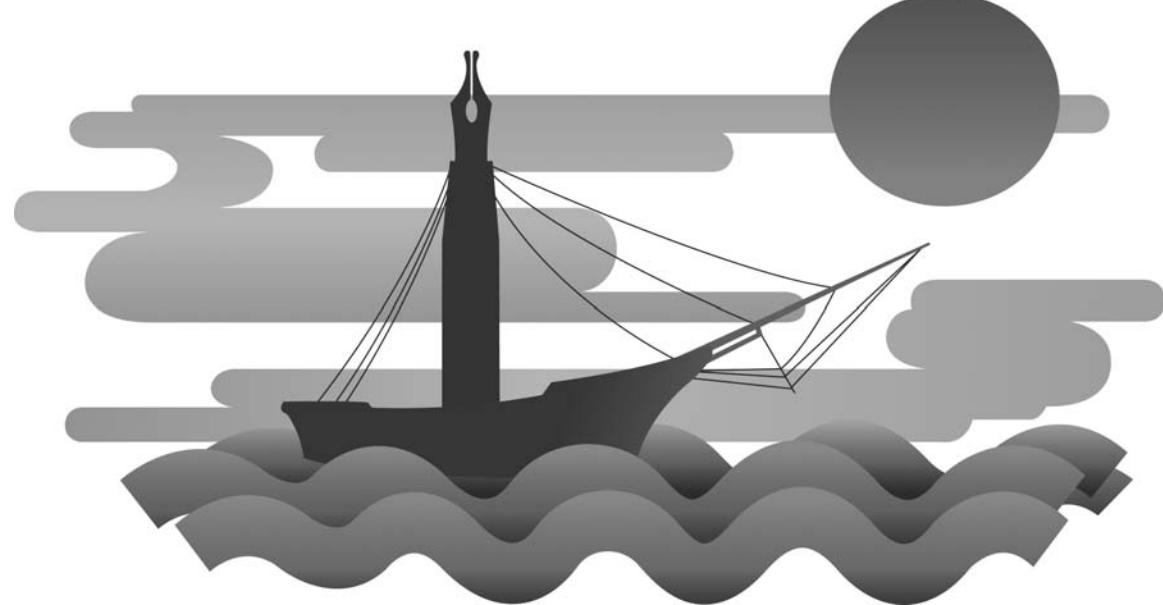
2~3백 킬로그램의 무거운 돌  
학, 돌질구, 돌 떡판, 돌 목욕통  
은 물론 값보다 무관하는 인간  
비가 더 들었다. 응우례도 있다.  
응우례는 깊은 곳에 고인 물을  
높은 곳에 있는 천수답으로 펴  
울리는 재래식 양수 시설이다.

고려시대 지체 높은 집에서 상  
(要)을 당했을 때 밤에 마당을  
황황 밝히도록 관술로 불을 켰  
다는 '불등'도 있다. 불등은 30  
여 년 전에 전주에 있는 민물상  
에서 70만원에 구입했다고 한  
다.

마을 입구에서 잡귀가 들어오  
지 못하도록 지킨다는 벽수도  
수집했다. 제대로 된 박물관이  
자여져 많은 사람들의 산 교육  
장으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.

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.

##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



"더 좋은 신문, 더 사랑 받는 신문,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"을 위해  
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 
'전북 최고의 신문'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 
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 
내 고장 소식을 빼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.

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 
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 
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 
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.